유료방송 가입자 정체… SKB, AIDC로 매출 1조 노린다

〈2030년까지〉

IPTV·SO 가입자수 증감률 1% 안팎 시장 점유율도 수년째 큰 변동 없어

AWS와 울산에 AIDC 구축 착수 지난해 매출 5199억… 34.9% 성장

가산 AI 데이터센터. /SK텔레콤

유료방송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전국 유선망과 데이터센터 자산을 앞세워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종합유선방송(SO) 가입자 수 증감률은 1% 안팎이다. 신규 고객 유입이 줄어 사실상 시장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2025년 상반기 IPTV 가입자 증감률은 0.49%를 기록했으며, SO는 1.48% 역성장했다.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도 수년째 큰 변동이 없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시장에서는 KT에 이어 2위, SO 시장에서는 LG헬로비전에 이어 2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가입자 규모가 가장 큰 IPTV 시장에서 KT의 점유율은 20~25%인 반면 SK브로드밴드는 16~18%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사업이 고전하는 가운데 전국 유선망을 활용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 서버를 유치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운영하며 전력·냉각 설비와 기업 고객 관리 경험을 쌓아왔다. 여기에 전국 단위 광케이블망과 기업용 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센터 간 연결과 기업간거래(B2B) 기반을 갖췄다.

2021년에는 당시 최대 규모인 가산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며 클라우드 수요 대응에 나섰다. 이후 AI 연산 수요가 급증하자 일반 서버를 수용하는 IDC에서 고전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운용하는 AIDC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지난해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울산에 100MW급 대형 AIDC 구축에 착수했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 시설은 향후 전력 수요에 따라 규모가 확대된다.

SK브로드밴드는 AIDC를 중심으로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의 최대 주주인 SK텔레콤이 지난 5월 잔여 지분을 취득해 완전자회사 체제를 갖추면서다. 최근에는 정석근 SK텔레콤 AI 사내독립법인(CIC)장이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DC) 본부장으로 선임돼 전사적인 AI 전략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그룹 내 AI DC 자산이 SK브로드밴드에 집중된 점도 긍정적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SK AX가 운영하던 30MW 규모 판교 데이터센터를 5068억원에 인수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AI DC는 분당·가산 등 총 9곳이다.

AIDC 사업 확대는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SK텔레콤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AIDC 매출은 5199억원으로 전년보다 34.9%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가산·양주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에 판교 데이터센터 인수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다만 AIDC 사업이 장기적으로 유료방송의 수익성 둔화를 상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전력·냉각 설비 투자가 선행되는 사업인 만큼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데이터센터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대형 고객 확보가 관건이다.

SK브로드밴드는 울산 AI DC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300MW 이상의 데이터센터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1조원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LG CNS, 에이전틱 AI로 시스템 개발한다

'데브온 에이전틱 AIND' 선봬
'지식 파운데이션'으로 맞춤형 개발
스펙 주도 개발방식… 일관된 품질

LG CNS가 AI 코딩 기업 클라인과 공동 개발한 에이전틱 AI 기반 개발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 CNS는 '데브온 에이전틱 AIND'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데브온 에이전틱 AIND(이하 AIND)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온 노하우를 집약해 각 공정을 수행한다. 사용자가 자연어로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고객 요구 사항 분석·설계 ▲코딩 ▲테스트·품질 검증 등에 특화된 AI 에이전트가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예를 들어 금융사가 기존 코어뱅킹 시스템에 신규 금융 서비스를 추가할 때 사용자가 "계좌 시스템과 연계된 예·적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구축해줘"라고 입력하면, 분석·설계 에이전트가 자연어 기반의 고객 요구사항 문서를 분석해 시스템 구조를 설계한다. 설계 안을 이어 받은 코딩 에이전트는 금융사의 개발 표준에 맞춰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결과 검토·승인 역할에 집중해 개발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핵심 기능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IT 정보를 통합·분석하는 '지식 파운데이션'이다. 이는 개발 표준, 보안 규정, 시스템 소스코드, 개발 산출물 등 기업의 IT 정보를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온톨로지 데이터베이스다. AIND는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시스템·업무를 학습해 고객 맞춤형 개발을 수행한다.

회사 측은 AIND에 스펙 주도 개발 방식을 적용했다. AI가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설계·코딩·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에 관계없이 일관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 효율과 편의성을 높이고 AI 환각(할루시네이션)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AIND는 개발 언어와 관계없이 시스템을 최신 기술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로 전환하는 레거시 모더나이제이션도 지원한다. 특히 코볼(COBOL) 등 구 언어로 개발된 시스템을 자바(Java)로 자동 변환해 구축하고, 자바 기반의 구형 시스템은 최신 아키텍처와 개발 표준에 맞춰 고도화한다.

기존에 수 주 이상 소요되던 코드 분석·변환·검증 작업을 분 단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해 생산성을 극대화했다. LG CNS는 현재 국내 대형 금융사 차세대 프로젝트에 AIND 기반 '코볼 to 자바' 기능을 적용 중이다. /조민선 기자

네오위즈, 창사 첫 개발자 대표 체제 구축

박성준 신임 대표이사 내정

네오위즈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개발자 출신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한다. 신작 개발 역량을 경영 전면에 내세워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네오위즈는 8일 박성준 신작개발그룹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배태근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 체제로 회사를 이끌 예정이며, 오는 8월 정기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취임한다.

네오위즈는 신작 파이프라인 가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개발 현장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 이번 인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신작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성과 창출에 전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 조직과 경영진 간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 내정자는 2013년 네오위즈CRS 개발이사를 시작으로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콘솔개발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부터 라운드8 스튜디오 본부장을 맡아왔으며, 2023년부터는 신작개발그룹장을 겸임하며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해왔다.

특히 글로벌 흥행작 'P의 거짓'과 확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 개발을 이끈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개발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콘솔 시장에서 네오위즈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대표 취임 이후에도 신작개발그룹장을 겸임하며 주요 프로젝트 개발과 경영 전략을 연결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SK AX-머서, AI로 조직인사 혁신 박차

AI+휴먼조직 운영 모델 개발 협약

SK AX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조직의 인사 제도를 설계하는 에이전틱 AI를 글로벌 인사조직(HR) 컨설팅 기업 머서(Mercer)와 공동 개발한다. SK AX는 글로벌 HR 컨설팅기업 머서와 'AI+휴먼 조직 운영 모델 개발 및 에이전틱 AI 플랫폼 구축 공동 사업 수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AI를 활용해 기업 내 조직 구조와 업무 방식 재설계를 지원한다. 특히 ▲사람-AI 협업을 위한 조직운영 모델 수립과 AI 에이전트 솔루션 개발 ▲인재 채용·육성·평가 전략 및 운영체계 구축 ▲AI 기반 문제 해결 역량 진단 등을 협력한다.

SK AX는 실제 업무 환경에서 사람과 AI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지능형 인사조직(HR)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하고, 머서는 글로벌 HR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별 조직운영 모델과 인사 제도를 설계한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고민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집중돼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AI가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서 자율적으로 실행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조직 운영 및 HR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SK AX는 지능형 HR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AI 중심의 조직 구조 설계와 인력 채용, 육성, 성과 관리 및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구성원들의 역량과 업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과 전사 운영 혁신도 기대된다. 회사 측은 AI를 기반으로 사내 시스템과 업무 데이터, 의사 결정이 연결돼 전사적 통합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지고 이는 의사결정 속도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고 설명했다.

김완종 SK AX 사장(왼쪽)과 장지원 머서코리아 공동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SK AX 본사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SK AX

김완종 SK AX 사장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단순히 AI를 도입했느냐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AI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운영 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SK AX는 그 누구보다 앞서서 진정성 있는 AX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머서의 차별적인 글로벌 HR 인사이트와 역량을 결합해 기업 고객이 조직 운영부터 인재 육성, 업무 방식까지 AI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KT, 광화문서 월드컵 국가대표 팝업 운영

대한축구협회와 'KT 온마루'서 진행
AI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 등 마련

KT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대한축구협회(KFA)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팝업 스토어를 공동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팝업 내에는 AI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과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담은 전시 콘텐츠가 마련됐다. 국가대표팀 사인 유니폼과 공인구, 트로피 등을 비롯해 2022년까지의 대한민국 축구 역사 발자취를 볼 수 있다.

대표 프로그램 'AX 로봇 드로잉'은 사진에 찍힌 관람객 사진을 AI 로봇이 캐리커처로 만들어 준다. 관람객은 완성된 결과물을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 'AX 포토 어시스트'에서는 갤럭시 S26 포토 어시스트 기능을 활용해 셀카를 촬영한 후 축구 관련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생성된 응원 콘셉트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다.

KT임직원이 KT 온마루 월드컵 팝업을 소개하고 있다. /KT

팝업 입장 시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입력하면 해당 메시지가 대형 미디어 스크린에 아트월 형태로 구현되는 '응원 메시지 미디어월'도 운영한다.

한편, 이번 팝업은 8일부터 KT광화문 빌딩 웨스트 2층에 위치한 체험형 공간 'KT 온마루'에서 연다. /조민선 기자